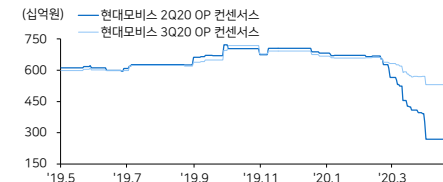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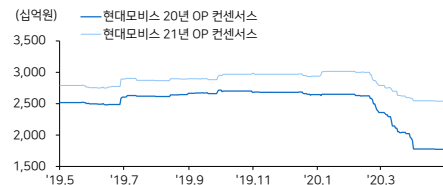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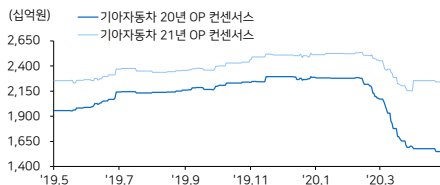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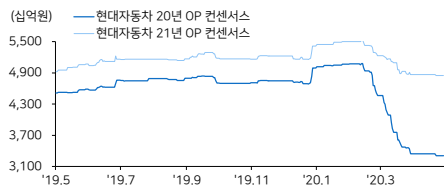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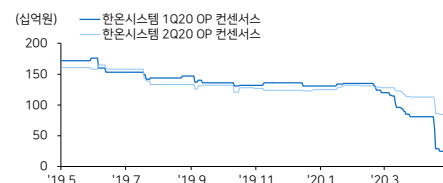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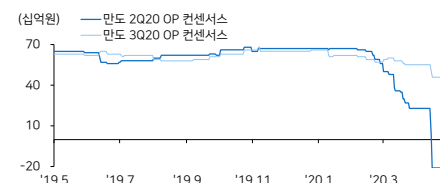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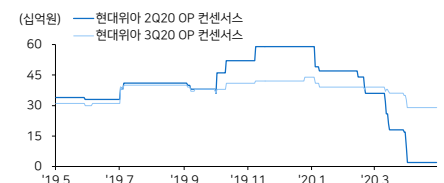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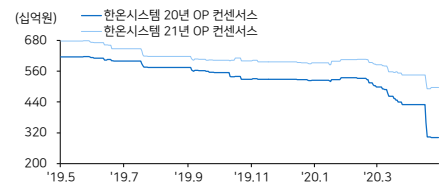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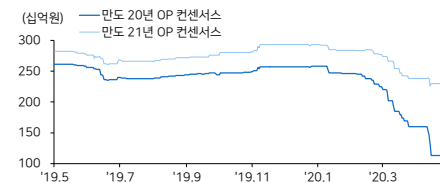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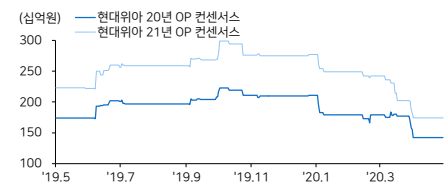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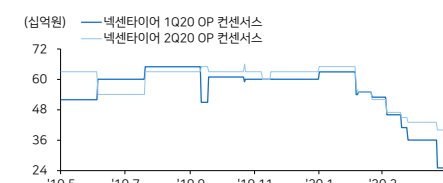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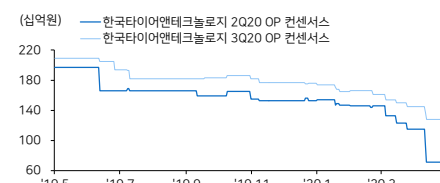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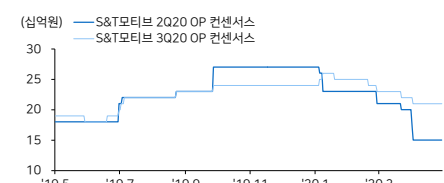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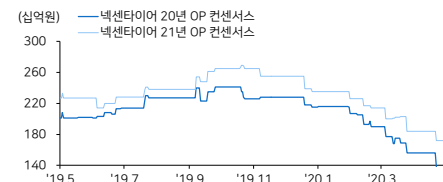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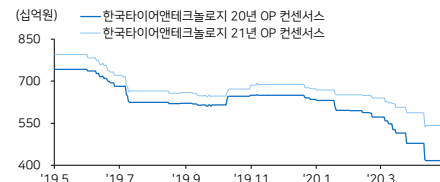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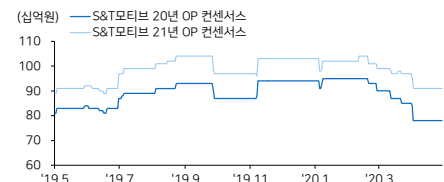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4천원으로 500km,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 싸움(EV (카리프트))

기아자동차가 '2020 월드카 어워즈(World Car Awards, WCA)'에서 2관왕에 오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차 텔루라이드와 싸움 EV 2개 차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 <https://bit.ly/36s57AN>

### 기아차 '스팅어 499km 전기차' 준비 중? (더드라이브)

미국 기아차 디자인 책임자 카림 하빔은 "스팅어가 새로운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 스팅어의 약점 중 하나인 연비를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기아차는 최대 499km의 주행거리를 가진 배터리 기술도 연구 중. <https://bit.ly/2ZWwMxX>

### 기아차, 유럽용 '소형 전기차' 전격 개발...시트로엥 '에이미'와 경쟁 (지피코리아)

기아차가 '시트로엥 에이미'와 경쟁할 소형 전기차를 2021년 선보인다는 계획.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이용률이 34%에서 65%까지 높아졌으며 기아차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형 전기차 개발 계획을 검토 중. <https://bit.ly/2LXtZyG>

###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겨레)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몇년간 산업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전통적인 강자들도 강도 높은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음. <https://bit.ly/2X0F6pf>

### 제네시스 G80 전기차, 레벨 3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 (모터팩트)

제네시스 G80 전기차,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식이 들려옴. G80 전기차에는 1회 충전 시 5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 팩과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짐. <https://bit.ly/3eaxwhm>

### 제네시스 '폭격의 질주'...국내 1만대 판매, 미션 럭셔리 위업 (한국경제)

제네시스가 내수 시장 월 1만 대 판매를 달성.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처음. 제네시스 첫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GV80과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대형 세단 G80(사선) 등 신차가 잇따라 성공을 거둔 결과. <https://bit.ly/36rV9pP>

### 현대차, 미·인도 판매 채널로 '엔텍트' 전면 도입 (전자신문)

"원하는 자동차를 클릭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현대차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최대 시장 미국과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엔텍트 온라인 판매 플랫폼 '클릭 투 바이'를 전면 도입. <https://bit.ly/2TDEELE>

### 기아차, '세계의 공장' 중국·인도...국내 기업도 글로벌 생산라인 정상화 (경향비즈)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생산공장도 정상화되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현지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 <https://bit.ly/36tC7c3>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